

〈重電機工業篇〉

促求되는 重電機分野의 軌道進入 새해 綜合評價制導入에 期待

朴 敬 燮

曉星重工業(株) 副社長

많은 사람들은 한해를 보내면서 회고할때 흔히들 “多事多難하였던 한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들의 生活 환경이 複雜多岐 해졌기 때문에 即 속담에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으니 해마다 多事多難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생각된다.

그 基準은 各者가 다를 수 밖에 없겠지만 84年은 LA올림픽의 熱氣가 韓國에 많은 生氣와 희열을 가져다 주었던 한해였고 그로 因하여 電力消費量도 新記錄을 樹立했었던 한해였다.

이 LA올림픽의 계속되는 過熱氣를 식히려는듯 8月 마지막날 퍼부은 큰 폭우는 昭陽江發電所의 浸水로 事故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一時 發電中斷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84년에는 83년에 開發한 345kV GIS가 3個所나 設置完了됨으로써 이제 우리 손으로 이룩된 변전기 자재가 超高電壓까지 거의 모든 具色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또한 供給電力源의 大容量化에 따라 새로이 開發試驗을 完了한 170kV 50kA GIS의 型式試驗은 同 31.5kA級의 型式시험에 이은 靑거로서 試驗發電所와 業界間의 共同協調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 研究所가 產業界發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 國內에 設備가 없어서 實施하지 못하였던 154kV 변압기의 短絡試驗에 거뜬히 合格함

으로써 우리 技術能力을 다시한번 内外에 確認시킬 수 있는 自負心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만할 수 만은 없는 부끄러운 면도 있었음을 自省해야만 했었다.

LA올림픽 熱氣가 加勢되어 負荷가 증가된 原因도 있었지만, 柱上變壓器의 사고로 배스컴을 탄 것이 바로 그것이고,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부끄럽고 反省해야 할 일도 있었음을 關係人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回轉機分野에서는 高壓3000馬力2極 大型 電動機가 製作成功되었음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記錄品이 될 것이다.

그러나 83년에 完全히 國產化된 電動車用 Traction Motor(서울 地下鐵 2號線用)가 훌륭히 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3號, 4號線用 전인 전동기를 事實上 完成品狀態로 導入하는 서글픈 現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고, 輸出을 振作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特히 產業界에서 온갖 努力을 다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現象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글프다기보다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思考方式이 우리들 스스로가 外債增加의 原因을 만들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大型變壓器에서 이와 類似한 前例가 어느 業體에 있었으며 不幸히도 그 製品이 運轉中 故障이 發生되어 궁극적으로는 當該社뿐 아니라 國家에 많은

損失을 일으킨 事例는 技術人으로서는 勿論 國民의 한사람으로서도 크게 地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余他 産業分野도 어찌 國民과 직접, 간접으로 關係가 없을 수 없겠지만, 特히 電氣工業分野는 그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他分野이긴 하지만 海運業界의 亂立으로 困한 過當競爭, 그로 困한 運營難으로 급기야는 政府가 介入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진통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는 한해이었는데 이제 重電機分野가 비록 단축스럽지는 못한 면이 多少 있을지 모르나, 비교적 安定을 찾아 成長계도로 進入하려는 기운이 익어 가는데 一角에서는 이를 沮害하려는 움직임이 지면을 통하여 보도됨을 볼때 大義를 위한 이해가 너무도 아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안고있는 430억불이란 엄청난 外債를 갚는데에 우리業界는 얼마나 責任을 져야 하는지 또, 이와 關聯하여 우리는 하는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慎重히, 슬기롭게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금년들어 10번째 맞는 “全國새마을 품질관리, 표준화”대회에서 다소 늦으나마 우리 중전기업계에서는 최초로 품질관리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은, 이제 우리 중전기 업계에도 철저한 품질관리 System에 의한 고신뢰도의 제품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으로 자못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資源貧國이기 때문에, 特히 所要油量的 全量導入이란 피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할때 우리에게는 電氣Energy의 重要性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그동안 政府를 비롯하여 이 Energy를 슬기롭게, 合理的으로 다루기 위한 方案을 강구해 오던바, 드디어 來年부터는 Energy關係製品에 對하여 低價爲主가 아닌 性能, 即 效率을 감안한 綜合評價制를導入하여 먼저 政府購買에 適用키로 했다는 것은, 좀 늦은感은 없지 않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合理的인 措處에 讚辭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볼이켜 보면 지금까지의 제도나 方法으로는 結果적으로 더러 惡貨가 良貨를 축출하는 現象을 다같이 저질러 왔었음을 가슴 아프게 反省해야 할 것이며 價格査定에 있어서 重量이나 體積爲主의 評價를 함으로써 資源浪費를 조장하고 技術開發을 沮害하는 要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綜合評價制의 導入으로 제작자는 더욱 분발하여야 할 負擔과 責任을 더욱 통감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 물론 이 제도의 施行으로 모두가 다시한번 省Energy의 認識을 높이고 具體적으로 Energy節約의 效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해본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 全体 經濟成長의 케도에 비추어 보아, 우리 電氣分野도 비교적 安定을 되찾은 한해로서, 한때 어지러웠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자리 數의 着實하고 正常的인 成長發展을 하였고 새해에도 政府가 發表한 水準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으리라 期待해 보면서 끝맺고자 한다. *

